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프로야구 선수도 근로자 인정을"

국회 '프로야구 제도·선수 인권 개선 토론회' 주장

프로야구 선수들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각종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문순, 천정배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12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 인권 실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수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프로야수선수협회는 선수 1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권실태 보고서를 통해 2군 선수들의 열악한 실상을 알렸고 현 시점에서 선수들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권익보호를 위해 교섭단체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에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천낙붕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각종 야구 규약이 안고 있는 법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천 변호사 외 박수근 교수(한양대 법대), 마해영 Xports 해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수근 징계 해제

지난해 음주 후 폭행 사건을 일으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무기한 실격 처분을 받았던 정수근(32)이 후반기 복귀한다.

KBO는 12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수근에게 내려진 징계를 해제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로써 작년 7월17일 무기한 실격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정수근은 1년 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오게 됐다. /연합뉴스

위성미 화끈한 티샷 위성미가 2009년 6월 11일 미국 메릴랜드주(州) 아브르 드 그라스의 불록 골프 코스에서 벌어진 LPGA 투어 맥도널즈 챔피언십 골프 토너먼트 1라운드중 5번째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희영·최나영 출발 좋다

맥도널드 챔피언십 1R 공동4위

올 시즌 신인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를 밟은 양희영(20·삼성전자)과 2년차에 접어든 최나연(22·SK텔레콤)이 메이저대회 맥도널드LPGA챔피언십 첫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양희영은 12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스의 불록 골프장(파72.6천641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5개를 골라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양희영은 전반에만 버디 4개를 잡으며 상위권으로 치고 나갔고 14번홀(파4)에서도 1타를 줄였지만 15번홀(파5)에서 보기를 적어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최나연도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로 양희영, 송아리(23)와 함께 공동 4위에 자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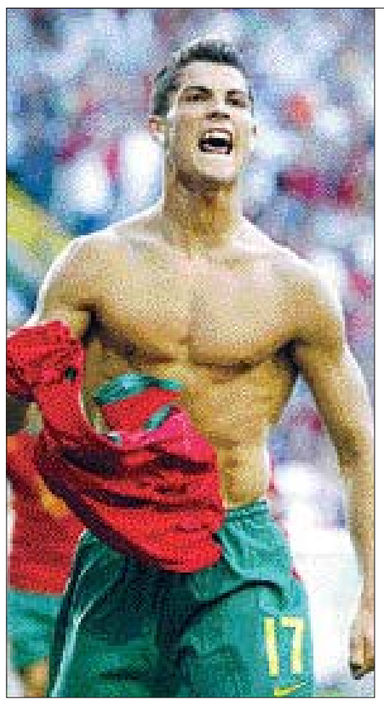
페어웨이는 단 한 차례만 놓치는 안정된 티샷을 보여준 최나연은 아이언샷을 그린 위에 잘 올려놓지 못한 것이 옥에 티였다.

이용대-이효정 8강

싱가포르 베드민턴

'금메달 남매' 이용대(21)-이효정(28·이상 삼성전기)조가 2009 싱가포르배드민턴 슈퍼시리즈에서 8강에 올랐다.

이용대-이효정 조는 11일(한국시간) 밤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회 3일째 혼합복식 16강에서 루드 보시-파울린 반 두레말렌(네덜란드)조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호날드 역대 최고 1,644억 레알 마드리드 이적

박지성 입지 '이상無'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4·사진)가 역대 최고액인 8천만 파운드(한화 약 1천644억원)의 몸값으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호날두의 이적이 완성되면 측면 윙어인 박지성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더구나 영국 언론을 통해 이적설이 대두하고 재계약 일정까지 지체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위건의 미드필더 안토니오 발렌시아의 영입설까지 퍼진 상황에서 박지성의 입지를 걱정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문성 MBC 축구 해설위원은 호날두의 영입협상이 박지성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기본적으로 위기라고 한다면 박지성이 전형적인 팀플레이어라는 데 있다"라며 "호날두같은 선수가 팀에 빠지면 박지성의 역할이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 위원은 "맨유는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해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더블 스쿼드를 운영해야 한다"라며 "박지성처럼 팀에 헌신적으로 뛰는 선수를 유럽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박지성의 효용가치를 생각하면 쉽게 버릴 카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플라티니 "호날드 이적료 도 넘었다"

미셸 플라티니(54·프랑스)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4·포르투갈)의 몸값을 놓고 세계 축구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잉글랜드 프로추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8천만 파운드(한화 1천644억원)에 호날두를 사겠다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플라티니 회장은 "세계 축구계가 전례 없는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이적은 축구 경기의 페어플레이 이념과 재정 균형을 위한 구상들에 대해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쓴소리를 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13일(토)

▲프로야구 〈기아 : 한화〉(17 : 00·MBCESPN), 〈히어로즈 : 롯데〉(17 : 00·SBS스포츠), 〈LG : SK〉(16 : 40·KBSNSPORTS), 〈두산 : 삼성〉(17 : 00·Xports)

14일(일)

▲프로야구 〈기아 : 한화〉(17 : 00·MBCESPN), 〈히어로즈 : 롯데〉(17 : 00·SBS스포츠), 〈LG : SK〉(16 : 40·KBSNSPORTS), 〈두산 : 삼성〉(17 : 00·Xports)

생활 게시판

화촉

▲나상학(전 광주일보 출판국 부장)·정명심씨 장남 원엽군 정춘모(전남대 산학연구처 관리팀장)·오윤자씨 장녀 겨운양= 13일(토) 낮 12시10분 메리어트 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임용섭(농심영업부장)·나미경씨 장남 솔(판사)군 김평기·조순자씨 장녀 유나양= 13일(토) 낮 12시30분 서울 법원종합청사. 02-530-1193.

▲김상원·성해순씨 장남 덕환군 유은영(한국광기술원장)·김수미씨 장녀 리타양 =14일(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동문회관 3층 예식홀. 062-605-9104.

▲신종영(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광주지부 지부장)·김애경씨 장남 봉하군 이종의·정숙희씨 차녀 미진양= 14일(일) 낮 12시30분 예술의 전당 2층 로즈마리홀.

부음

▲정영심씨 별세 박영호·세호·정란·정인씨 모친상= 발인 14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복남씨 별세 박휘주·길주·승주·오주·정주·칠주씨 모친상= 발인 14일(일)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최명진씨 별세 한규·한민·정화·연화씨 부친상= 발인 14일(일) 나라장례식장 3층(특실) 분향실. 062-670-4444.

▲서은정씨 별세 문제원·제근씨 모친상= 발인 14일(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순자씨 별세 배혜경(광주남부경찰서)씨 모친상 김현철(광주지방경찰청)씨 빙모상= 발인 14일(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